



2013

인천국제공항공사
한국공항공사
국정감사

<국정감사 목표>

‘세계일류 항공강국’

국회의원 이명수 (충남 아산)

2012 국감 미조치 사항 주요내용

<인천국제공항공사>

1. 면세점의 해외 명품에 치중 개선 및 국산브랜드 제품 판매 활성화
2. 위험물품 적발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 및 보안관리 체계 강화

<한국공항공사>

1. 한국공항공사 승객편의성 - 온수 미제공, 휴대폰 충전 강화
2. 임대수익이 절대적인 공항공사의 수익 다양화 필요
3.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익감소 대책 마련

정책백서 – ‘Sale & Buy KOREA’ 하라 !

- 세계 각국 공항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‘해외 유명브랜드 매장’ 일색
- ‘12년 면세점 총매출 5조4,327억원 中, 4조3,397원(80%) 차지
- ‘MADE IN KOREA’ 명맥 유지, 한국관광공사 매장 철수확정 · 유찰 중

2013 국정감사 정책백서 (국토교통분야 공항 항공부문)

Sale KOREA Buy KOREA

인천국제공항 및 김포·김해·제주국제공항
상업시설 및 면세점 실태와 현황을 중심으로



국회의원 이명수
(충남 아산, 국토교통위원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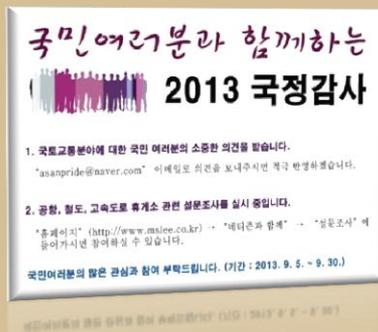
| COSMETICS | | | | LEATHER | | | | LIQUOR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2010 | 2011 | 2012 | | 2010 | 2011 | 2012 | | 2010 | 2011 | 2012 |
| 1위 | SK-II | SK-II | SK-II | 1위 | 구찌 | 구찌 | 루이비통 | 1위 | 발렌타인 | 발렌타인 | 발렌타인 |
| 2위 | 에스티로더 | 아모레퍼시픽 | 아모레퍼시픽 | 2위 | 샤넬 | 루이비통 | 구찌 | 2위 | 조니워커 | 헤네시 | 헤네시 |
| 3위 | 랑콤 | 에스티로더 | 에스티로더 | 3위 | 까르띠에 | 까르띠에 | 프라다 | 3위 | 로알살루트 | 조니워커 | 조니워커 |
| 4위 | 아모레퍼시픽 | 랑콤 | 랑콤 | 4위 | 에르메스 | 샤넬 | 샤넬 | 4위 | 헤네시 | 로알살루트 | 쿠르브와제 |
| 5위 | 샤넬 | 샤넬 | 샤넬 | 5위 | 버버리 | 에르메스 | 에르메스 | 5위 | 쿠르브와제 | 쿠르브와제 | 로알살루트 |

▲ 2012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판매 1위 품목(출처 : 에어스타에비뉴)

➔ 대한민국 없는 단기 수익 보다,
대한민국 있는 중 · 장기 이익이 정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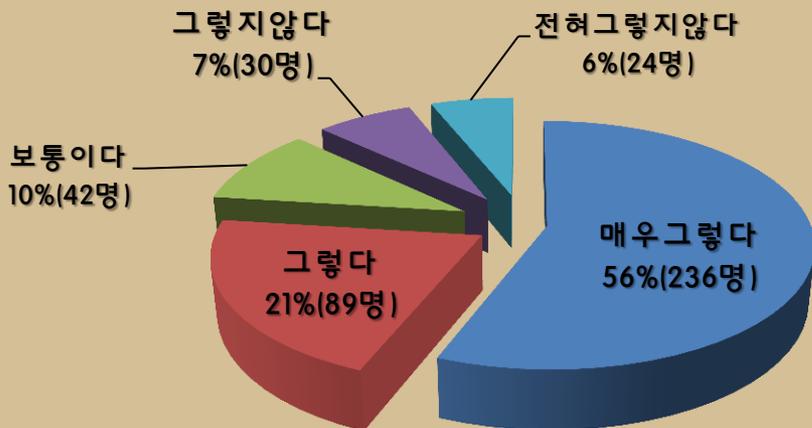
국민여론조사 – ‘Sale & Buy KOREA’ 기지화 하라!

- 공사, 비항공수익 극대화정책(최고가낙찰제)으로 「高임대료」 낙찰
- 판매가격은 비싸고, 다양한 한류음식 “부재” - 승객 대안 없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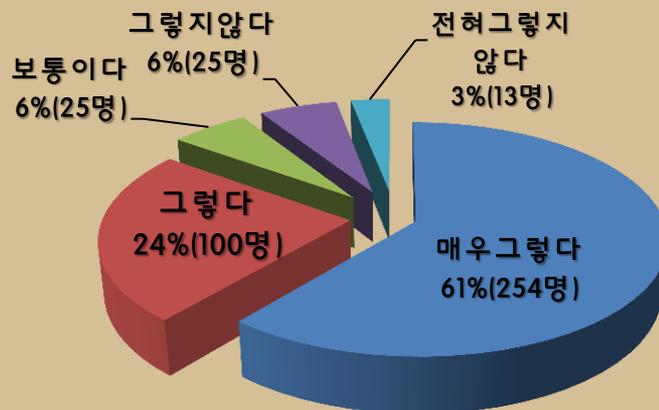


- 설문조사 : 국회의원 이명수 홈페이지
- 설문기간 : 2013.9.5.~9.30. (26일간)
- 참여자 수 : 421명

1. 인천공항 내 한국 전통의 이미지를 느낄 수가 없다



2. 공항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시중보다 비싸다



국민여론조사 – ‘Sale & Buy KOREA’ 기지화하라!

- 일본, 지방공항별로 일본풍 반영한 「정갈하고 맛있는」 음식 제공
- 일본, 공항도시락 ‘소라벤’ 개발 - 공항별 지역특성 반영 판매

▶ 일본의 공항도시락 ‘소라벤’ - 소라(하늘) + 벤토(도시락)



→ 국내 ‘맛 · 품질’ 맞는 **한국적 전통식 · 새참 입점 및 개발, 판매 필요**

세계1등 공항점검① - 개항 목표 '동북아 허브공항' 달성 여부

- 국적사 '허브공항(?)', 구미 주요항공사 '아시아 거점공항화' 엔 실패
- 경쟁공항에 동북아 거점공항 '실적' 주고, 1등 타이틀 '성과' 만 자랑
- 면세점 등 비항공수익과 '단기성과' 창출에 집중하는 경영전략

▶ 동북아 거점공항 현황



Incheon Airport
1등만 하면 되지 !?

➔ 구미 주요항공사(코어항공사) 유치 위해 인적·물적 지원 강화 필요

- 정부와 공사, '인천국제공항 허브정책'에만 집중 경향
 -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(총사업비 약 5조원, '17년 완공목표) 진행 중
- 일본, '허브공항(항공사中心), 셔틀공항(승객中心)' Duel System 가속화
 - 승객중심 위해 '10년 하네다공항 확장 완료, 단거리 국제선 강화
- 중국, 북경·상해·광조우 대도시권 2개 공항 시스템 집중하여 현실화
 - 현재 158개 공항, '20년 244개로 공항 증설 통해 승객 편의 집중



➔ 단거리 국제선 승객 편의 위한 **수도권공항정책 강화 필요**

세계등공항점③ - 8년연속 1등에 걸맞지않는 '승객서비스'

- '공항' 평가에선 "명예의 전당", '면세점'엔 "고가 명품의 전당"
- 공항이용료 2만8천원 지불한 '이용객', 작은 서비스 부실에 불만
- 중국공항, 무료 냉·온·열 음용시설과 다양한 캔 대중음료 자판기 가득
- 입국장 수하물 간이카트 제공 등 '선도형 기본서비스' 는 우리보다 앞서



중국 쿤밍공항
냉·온·열 정수기(冷·溫·熱 淨水器) 시설에
1회용 종이컵 비치



홍콩국제공항
입국장 카트 설치



상해 푸둥공항
각종 음료 자판기

나리타 국제공항
각종 음료 및 식사 대용식 자판기

➔ 진정한 세계 1등 공항 등극 위해, **‘작고 착한 서비스 보완’** 필요

세계1등 공항 점검④ - 허브공항의 핵심 '환승객 서비스'

- 환승객 증가세, '10년 519만명 ⇨ '11년 566만명 ⇨ '12년 686만명
- 대상 프로그램, 動的 '한국 전통 볼거리, 즐길거리, 먹거리' 태부족
- 기존 대행사 계약 해지, 단순코스 순방식 '해외 이용객 호응부족' 사유



인천국제공항 - '정적인' 프로그램
한국문화박물관 · 전통공예전시관

일본 하네다공항 - '동적인' 탑승장
옛 도쿄 · 에도시대로 꾸민 탑승장

➡ 개방형 한류 동영상관 · 참여형 난타 · 사물놀이관 등
한국적인 감성을 각인시키는 프로그램 보완 · 강화 필요

- 공항내 분실사고 등의 사유로 CCTV 열람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음
- 인천국제공항내 설치 CCTV 864대, 대부분 주요 설비·시설 보호용
- 실시간엔 식별 가능하더라도, 압축저장 및 전송되었을 때 식별 불가능

▶ 인천공항 내 설치된 41만 화소와 동일 화질 영상과 고화질에 속하는 100만 화소 영상



△ 41만 화소(CCD) -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



△ 100만 화소(DIGITAL) - 차량번호 식별 가능

➔ 효율적인 영상감시시설 구성과 제대로 된 저장·전송 시스템 구축 필요

세계1등 공항 점검⑦ - 아웃소싱 '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문제'

- 인천국제공항 운용 총 인원 7,138명, 공사 정규직 인원 1,007명(14.1%)
 - IMF 이후 '정원 구조조정', '업주 급증' 사유로 '아웃소싱 대폭 확대' 추진
- 아웃소싱 소속 6,098명(85.5%) - 이 중 80% 이상이 月2백만원以下 급여
- 공사 정규직 평균 연봉 8천만원선, 아웃소싱內 임금격차 5배도 존재

▶ 아웃소싱 현장책임자 對 최저임금 근로자 (2013.7월 現, 단위: 만원)

| 용역명 | 계약업체 | 계약인원 | 평균(月) 인건비 | 평균 임금격차(月) |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| | | | 최고 | 최저 |
| 셔틀버스 운영 | 000 | 71 | 249 | 905 | 190 |
| 토목시설유지관리 | 0000 | 71 | 277 | 801 | 179 |
| 환경 관리용역 | 00000 | 11 | 317 | 810 | 190 |
| 통신인프라 관리용역 | 0000 | 206 | 393 | 814 | 189 |
| 교통·주차시스템 관리 | 000 | 40 | 363 | 850 | 189 |

➔ '거대 甲' 은 홀대, '고용 甲' 지나친 차별대우, 개선 필요

국민이 원하면① - '입국장 면세점 및 면세품 수취점' 설치

- 공항내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, 10년째 방치상태 - 관세청 반대로 무산
- 적극반대, KAL · ASIANA는 항공기내 입 · 출국 제한 없이 면세품 판매 중
- 62개국(115개) 입국장 면세점 운영, 북경 · 상해 · 창이 · 첵랩콕 공항도
- 인천공항공사, 찬반입장 '우왕좌왕, 갈팡질팡' - 그때 그때 달라

▶ 개점휴업 상태인 '입국장 면세점 시설'



<터미널 1층 입국 수화물 수취지역 2개소, 총 12평의 공간(동 · 서 각 60평)>

➔ **입국장 '면세점'** 은 시범운영, **'면세품 수취장'** 은 조기시행 필요

- 세계 1등 공항의 핵심은 Safety, Service, Speed - 3S 확보가 관건
- 美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사고시, 출동 소방대 인명추돌死는 교훈
- 공사 직영소방대 아닌 외주 민간소방대 철저한 관리 및 점검 필요

▶ 지난 7월, 美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사고현장 출동 소방대 모습



➔ 외주 입찰시 **‘고도 전문성 변별력 강화로 3S 100% 확보’** 긴요

- 지방공항 전체 공히 항공수익 감소하고 비항공수익 계속 증가세
- 규모 큰 공항(김포·김해·제주)일수록 비항공수익(69%) 매우 높음
- 비항공수익 대부분, 상업시설 임대수익(83%, '12)이 차지해

▶ 한국공항공사(14개 지방공항) 매출수익구조 현황 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계 | 매출수익구조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항공수익 (비율) | 비항공수익 (비율) |
| 2010 | 485,500 | 168,951 (35%) | 316,549 (65%) |
| 2011 | 565,818 | 184,869 (33%) | 380,949 (67%) |
| 2012 | 644,081 | 198,490 (31%) | 445,591 (69%) |

➔ **지자체와 연계, 내 고장 공항 활성화 등 촉진 필요**

- 2010년 경영평가 '매우 우수', 2012년 청렴도 평가 '자체3등급' 으로 떨어져
- 김포공항, 32년만에 최대규모 공사(2,500억원) 추진
- 제주공항, 대규모 활주로 확장공사 추진 - 청렴성 회복 '빨간불'



➔ **수자원공사, 4대강사업 · 아라뱃길 사업 이전 '최우수'**
이후, 부패비리평가 '최하수준', 반면교사로 삼아야

- 김포국제공항, 편리한 도심 접근성 · 신속한 출입국 수속 등 강점
- 인근 국가 입 · 출국 비즈니스 승객, 노선 빈약으로 이용불편 가중

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김포공항 | 인천공항 |
| 국내선 중심공항 | 국제선 전담공항 |
| 국제선 비즈니스 지원 [제한적 국제선 전세편(차터편) 운항] | 동북아 허브공항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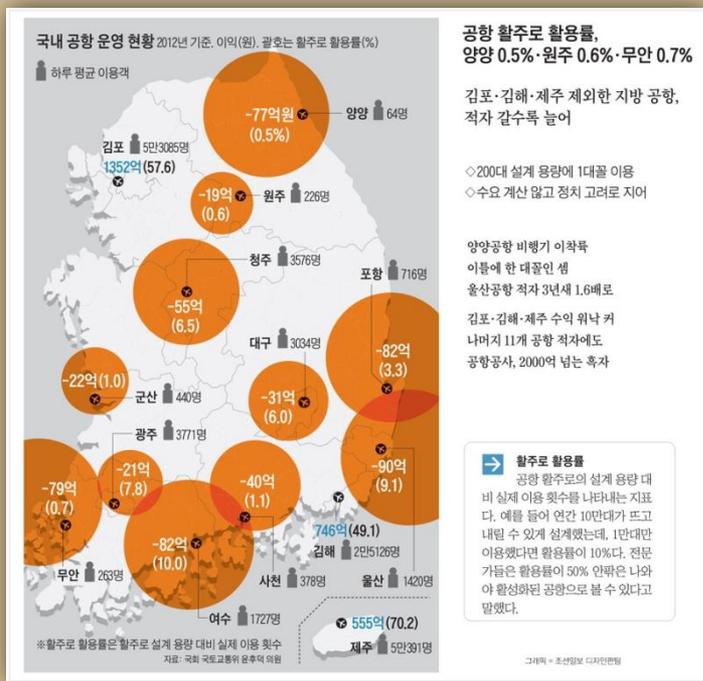


➔ **승객중심 및 비즈니스 경쟁력 최상급 공항,**

환승수요(인천공항 허브화) 未발생 상용노선 특화 국제선 확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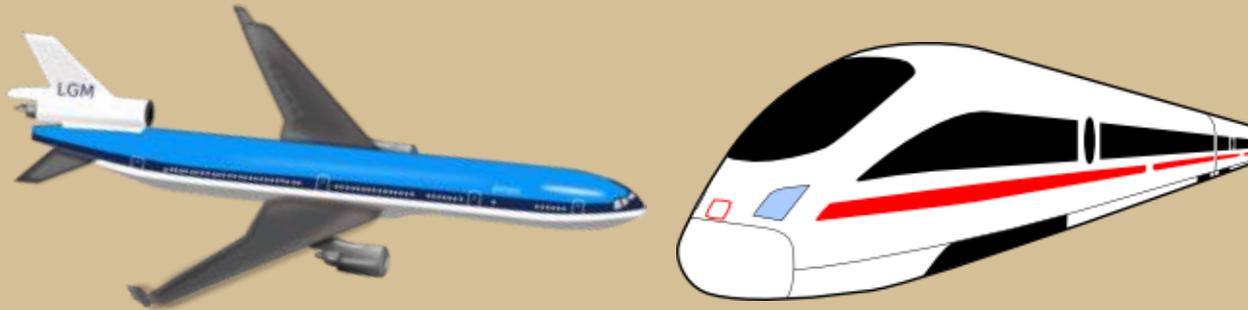
지방공항점검① - 「누적적자 · 양극화 · 무한경쟁 3중고」

- 14개 공항 중 김포 · 김해 · 제주 제외, 11개 공항 ‘12년 2천억 적자 · 항공수요 감소 ⇨ 탑승률 저조 ⇨ 노선감편 악순환
- 지방 핵심공항(김포 · 김해 · 제주)과 他지방공항과의 양극화 심화
- KTX, 도로망 확충, FERRY 등 상업적 경쟁자 강세



➔ 저비용항공사 · LCC유치 · 국가공익노선 신설 · 지원 필요

- KTX 경부선 개통이후 수익·수요감소, '김포-대구' 노선 폐지('07년)
- KTX 호남선 1단계(용산~광주, '14년末) 개통예정, 광주·무안공항 영향
- KTX 수서발 호남선 '15년 본격 개통시, 무한경쟁시대 돌입 예정



▶ KTX 개통 이후, 관련 지방공항별 항공수요 감소 현황 (여객: 명)

| 공항별 | '13.1.1~'13.8.31 | 증감율(%)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'12년 대비 | '11년 대비 | '10년 대비 |
| 김해-김포 | 1,300,735 | △13.9 | △15.6 | △24.1 |
| 울산-김포 | 292,701 | △15.4 | △26.1 | △56.1 |
| 포항-김포 | 135,552 | △15.7 | △6.4 | △45.9 |
| 여수-김포 | 299,145 | △44.2 | △33.3 | △34.2 |

➔ KTX와의 무한경쟁 및 승객 수요 경쟁대책 수립 시급

- 남부지방 대표관문, 항공수요 풍부, 올해만도 국제선 4개 추가
- 여객수 최근 5년간 국내선 · 국제선 지속 증가, 승객 1천만 시대
-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2,087억원 · 국제화물 年 4% 지속 증가세



2023년 포화상태 전망

➔ 동남권 대표관문에 걸맞은 승객중심 서비스 강화 필요

- 여객수 최근 5년간 연 평균 국내선 10.4%, 국제선 9.9% 꾸준한 증가세
-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1,554억원 · 국제화물도 年 4.6% 지속 증가세
- 공항 인프라 확충 또는 신공항 건설 ‘항공수요조사 용역’ 본격추진



➔ 항공수요 감안, 제주 특성 반영된 공항 재건설 촉구

- 지리적 위치로는 ‘거점공항’, 실제론 ‘적자누적 공항-애물단지’
- 대구공항, 김해국제공항과 통·폐합 희망 - 동남권신공항 주장
- 청주공항, 항공기 수리 및 폐차 등 특성화산업 공항(민영화) 시도
- 무안공항, 지난 수년간 年 이용객 10만 이하, 올해 활성화 기미

▶ 대구 · 청주 · 무안국제공항 재무건전성 현황



| 구분 | 대구 | | | 청주 | | | 무안 | |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2010 | 2011 | 2012 | 2010 | 2011 | 2012 | 2010 | 2011 | 2012 |
| 당기순이익 | -17억 | -23억 | -31억 | -51억 | -54억 | -55억 | -69억 | -78억 | -79억 |

➔ ‘폐쇄’ 하면 공항유휴화, ‘유지’ 하면 적자투성이
김포 · 김해 · 제주공항에서 ‘적자 메움’, 대책 시급

- 양양공항, 年 75억원대 적자, '18년 동계올림픽에 기대 - 이후엔 ?
- 원주공항, '활성화 대책, 있으나 마나!' - 항공수요 근본적 부족
- '18년 동계올림픽用 『인천공항~서울~원주~평창~강릉간준고속철』 신설
- 강원도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노선신설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



여름에는 동해바다, 가을에는 단풍 명산, 겨울에는 스키장 등 강원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'LCC 항공사' 유치·연계 등으로 당일치기 여행코스 개발 등으로 공항 활성화

→ 양양공항, 'LCC 집중 유치' 등 「강원도의 힘」 보여야

- 개항의 명분과 타당성 잃은 완전히 실패한 지방공항 건설사례
- 울산·사천공항, 최근 국제선 전세기 부정기 취항 계획 취소사태
- 군산공항, 국토교통부 확장 반대, 일각에선 김제신공항 건설 주장

울산공항
ULSAN AIRPORT

광주공항
GWANGJU AIRPORT

포항공항
POHANG AIRPORT

여수공항
YEOSU AIRPORT

사천공항
SACHEON AIRPORT

군산공항
GUNSAN AIRPORT

6개 지방공항 2012년 총 여객수 **3,393천명**

김포국제공항(**19,430천명**)의 6분의 1 수준

반면, 6개 지방공항 2012년 누적적자 **33,605백만원**

➔ 선진국 **‘유사공항 재활성화 성공사례’** 연구·대책 필요

- 국토부, 50인승 중소형기 이 · 착륙 가능한 소규모 공항 건설 발표
- 해양영토 수호 지원, 교통오지 접근성 개선, 관광산업 활성화 등 多目的
- 총 사업비 울릉공항 4,900억원 · 흑산도공항 1,400억원, 100% 국비

▶ 울릉 · 흑산도공항 예정지 설계도면(안)



<울릉공항>



<흑산도공항>

➔ **섬 특수성 · 해양기후 · 중소형기 취항 등 만반의 대책 필요**